

## 참된 성탄 축하

마태복음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중요성은 온 세계가 쓰는 연도에서 잘 드러나 있다. 세계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주전과 주후로 표현한다. 오늘은 주후 2014년 12월 25일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날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생일축하를 받기를 원한다.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한다. 예수께서는 어떤 성탄 축하를 원하실까? 그는 크리스마스 트리나 아름다운 장식을 원하실까? 그는 성탄절 현금이나 구제의 일을 원하실까? 참된 성탄 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 때 가능하다. 그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그의 성탄을 참으로 축하하는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왜 세상에 오셨는지 바르게 알 때 우리는 그의 성탄을 참으로 축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 죽기 위해 오심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즉 그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 오셨다는 뜻이다. 대속물은 죄인의 죄를 위해 대신 죽는

짐승을 가리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과 대접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실상,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죽으셨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고 마침내 죽으셨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했다(사 53:5). 또 고린도 후서 5:14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대리적 속죄의 이치이다.

그러므로 참된 성탄 축하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탄생하셨음을 알고 그를 믿고 죄 씻음받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

## 살리기 위해 오심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모든 사람은 죽는다. 단지 몸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다 그런 처지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다(요 3:16).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었다.

요한복음 5:24에 보면,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요한복음 6:39-40에 보면, 예수께서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얻는 것이다. 즉 부활과 영생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9-10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림을 받았다.

그러므로 참된 성탄 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을 소망하며 새 삶, 즉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는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다.

### 함께하기 위해 오심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었다. 요한복음 1:14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한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그 분, ‘말씀’이라고 불리는 그 분께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 그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신비한 인격이 되셨다. 그는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사셨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하실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육체 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실 수 있고 우리 회중 안에 거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마 18:20). 그것은 그의 신성의 영께서 그들과 함께하시는 것을 가리켰다. 또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마 28:20). 하늘로 승천하신 주께서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수 있는가? 그것도 그의 신성의 영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말한다.

주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었다. 요한복음 14:16-20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

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세상에 내려오신 성령께서는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일체이시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신다. 로마서 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서 4:15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연약성을 친히 아시는 자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더 잘 도우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그는 마귀의 시험이 많고 험한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날마다 큰 위로와 힘이 되신다. 그러므로 참된 성탄 축하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힘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참 성탄 축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 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세상에 오셨는가?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셨다. 또 그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 또 그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참된 성탄 축하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모든 죄를 멀리하고 영생의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순종의 삶을 살고, 또 세상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성령의 큰 위로와 힘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성탄 축하이다.